

제2010-1호

한 국 사 회 학 회 소 식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Newsletter

〈주 요 기 사〉

- 1) 2010 제주 전기사회학대회 상세일정 공고
- 2)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 (S. S. K.) 공고
- 3) 사회갈등과 통합방안 연구 심포지엄 개최 보고

발 행 처 : 사단법인 한국사회학회

발 행 일 : 2010년 3월 31일

전 화 : 02-722-8747

팩 스 : 02-722-8746

홈페이지 : <http://www.ksa.re.kr>

이 메 일 : admin@ksa.re.kr

발 행 인 : 양영진

편 집 인 : 김주현

사무국장 : 이정은

I. 한국사회학회장 인사말

새 봄, 새 학기를 맞이하여 회원여러분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첫 번째 중요한 학술행사로 기획된 “한국의 사회갈등과 통합방안 연구” 심포지엄이 별다른 실수 없이 성황리에 치뤄졌음을 보고 드리게 되어 관계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일견 진부한듯한 주제를 각자의 독특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이론적, 추상적 수준 논의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실용적 수준에서 당장이라도 실천 가능한 참신한 정책대안들을 많이 제시해주신 발제자 여러분들, 발제자와 다른 시각에서 또 다른 보완책들을 제시해주신 토론자 선생님들, 발표·토론자보다도 더 깊은 식견을 유감없이 표출하며 큰 방향을 잘 잡아주신 사회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과제들을 치열하게 고민해 보려는 저희들의 이러한 집합적 노력들이 인문·사회과학의 위기 속에서 사회학의 위상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사회학의 필요성을 일반 시민들에게 강조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발표된 11개의 논문들이 제각기 흩뜨러지지 않고 하나의 중심주제 속에 잘 통합되어 있으니 만큼 저희 학회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전문 학술지의 특집호나 단행본 발행을 검토해보려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p. 15 - 17 기사 참조, 3월 20일자 동아일보 A6면 참조.]

저희들의 6월 전기사회학대회가 두 달 남짓 뒤로 다가왔습니다. 이 준비 또한 제가 예상치 못한 큰 도움들을 여러분들로부터 받게 되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일 먼저, 좌석예약조차 어렵다는 김포-제주 왕복비행기 좌석 150내지 200석을 할 중요금이 적용되는 주말 황금시간대에 확보함은 물론, 많은 할인까지 받아서 대한항공 요금의 반값 정도로 해외(?)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p. 7 - 12 기사 참조] 이러한 중복적 특혜는, 우리 학회 박재묵 차기 회장께서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 김재건 사장님과 40년 동기동창이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박 교수님과 김 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둘째로, 부회장이신 제주대 조성운 교수께서는 보광그룹 관계자와의 친분을 활용, 준공 된지 1년 밖에 안 된 섭지코지 해안가의 휘닉스 아일랜드 콘도 호텔 숙박비용을 삼분의 일 가격으로 할인 계약해 주셨습니다. 정말 크게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 학회는 평범한 제주대학 강의실이 아닌 휴양지 콘도 회의실들을 이용, 맑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발표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한국리서치의 노익상 사장께서는 금요일 저녁 만찬이나 토요일 오찬을 포함한 여러 비용에 보태 쓰라고 거금 1000만원을 쾌히 기부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학회의 일반회원님들도 정해진 최저비용보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송금해주시는 방법으로 학회적자를 메워 주셨으면 합니다. \ (^_^) d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이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보고들을 종합하자면 “회원 여러분들이 학회등록을 위해 내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한 혜택을 돌려드리려고 준비하는 임원진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만큼,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부디 많이많이 참석만 해주십시오.”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4월 19일(월) ~ 4월 30일(금)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택하신 각종 option을 명기한 신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차이나는 등록비용을 송금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무슨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여러 좋은 행사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주저 없이 학회로 (또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주도에서 모두모두 뵙기를....(*^_^*)

학술적인 소식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공고는 안났지만, 이미 소문이 나서 아시는 분은 다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신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 (약칭 S. S. K. : Social Sciences Korea)” 관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p. 14 참조] 대부분 소속 학과나 단과 대학 위주로 연구계획서를 쓰고 계실 것으로 짐작합니다만, 혹시라도 교양학부라든지 대학부설 연구소, 또는 독립된 연구기관 소속이셔서 최저 3명의 연구팀 구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한국사회학회>소속’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요강 중에 ‘학제간 연합’ 또는 ‘대학간 연합’ team에 가산점을 준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결코 불리하지 않게 (혹은 더 유리하게) 심사할 것으로 짐작합니다. 모쪼록 우리 사회학회의 많은 회원들께서 연구 지원금을 받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0년 3월

한국사회학회회장 양영진 드림

II. 공지사항

I 2010년 한국사회학회 임원 명단

1 회장단

- 회 장 : 양영진 (동국대)
- 부회장 : 이 건 (서울시립대), 조성윤 (제주대)
- 감 사 : 신동준 (국민대), 이수안(이화여대)

2 이 사

- 당연직
 - 김문조 (고려대), 이은진 (경남대), 이윤희 (인천대),
 - 박재목 (충남대), 함인희 (이화여대, 편집위원장)
- 선임직 (상임)
 - 총무이사:
 - 김정석 (동국대), 이기홍 (한림대), 김석호 (성균관대), 김형용 (동국대)
 - 김주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연구이사:
 - 이정규 (호남대), 우실하 (한국항공대), 설동훈 (전북대), 조주은 (경북대),
 - 정재기 (송실대)
 - 섭외이사:
 - 김철규 (고려대), 유승무 (중앙승가대), 김상원 (동의대), 염미경 (제주대),
 - 궁선영 (고려대)
 - 국제이사:
 - 김경만 (서강대), 한영혜 (서울대), 김광기 (경북대), 염유식 (연세대),
 - 이윤석 (서울시립대)
- 선임직 (비상임)

김안나 (대구카톨릭대)	김원동 (강원대)	김한곤 (영남대)
김현희 (한신대)	김희재 (부산대)	박해광 (전남대)
송유진 (동아대)	윤영민 (한양대)	이선이 (아주대)
이영희 (가톨릭대)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이항우 (충북대)
장미혜 (한국여성개발원)	장상수 (순천대)	전성표 (울산대)
조병구 (한국개발연구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황석만 (창원대)

II 사업 계획

1 경상사업

1. 학회지 발간

- 1) 『한국사회학』 발간 : 연4회
편집위원장 : 함인희 (이화여대)
- 2) *Korean Journal of Sociology* 발간 : 연2회
편집위원장 : 장원호(서울시립대)

2. 정기 학술 대회

- 1) 전기 사회학대회
 - 시기: 2010년 6월 11일 (금)~13일 (일)
 - 장소: 제주도 성산포 휘닉스 아일랜드 호텔
 - ※ 12일 오후, 13일 '올레길 함께 걷기' 행사 개최
- 2) 후기 사회학대회
 - 시기: 2010년 12월 중순
 -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2 특별 사업

1. 연구 영역 과제

- 1-1) 한국의 사회갈등과 통합방안 연구
 - 한국 사회의 계층·세대·남녀·다문화간 갈등의 배경과 현상
 - 사회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통합 방안 모색
 - 심포지움 개최 : 2010년 3월 19일(금), 한국프레스센터

1-2) '사회학자, 한국인의 행복을 묻다'

- 평범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을 찾고, 만들고, 누리고, 나누는가?
- 행복 현상 논의를 통한 한국인의 가치관 및 세계관 탐구
- 심포지움 개최 : 2010년 11월 예정
- 주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한국종교사회학회, 한국이론사회학회, 한국문화사회학회

1-3) 사회과학 4대 학회 연합 학술연구

- 한국 사회과학 최초로 4대 학회가 모여 공통의 관심주제에 대한
 난상토론의 장을 마련
- 연합 심포지움 개최 : 2010년 9월 예정
- 주최 :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

1-4) 원자력 홍보 매뉴얼제작 연구

- 원자력발전 관련 사회과학적 기반 및 사회적 소통 방안 탐구
- 원자력 기술 수출에 수반되는 의사소통 관련 매뉴얼 작성
- 연구 완료 시기 : 2010년 11월 예정

1-5) 농촌사회 관련 연구

- 주제를 비롯하여 전반적 논의 중
- 주관 : 한국농촌사회학회

2. 특별 심포지움

2-1) 세계화와 국제범죄

- 범죄와 일탈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통찰
- 세계화 시대 국제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
- 시기 : 2010년 9월 예정

2-2) 현대 한국 사회의 문화적 풍경

-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심층적 접근
 (예. 핸드폰, 택배, 방(房)문화, 라면 등)
- 제도·시스템보다는 관습·가치관·취향 등의 소프트웨어 중심 접근
- 시기 : 2010년 10월 예정

2-3) 새터민의 정체성과 적응과정

- 새터민이 정착·적응하는 과정에 대한 학제간 연구 (사회학, 심리학, 의학 등)
- 시기 : 2010년 10월 예정

3. 연구용역 수주 지원사업

3-1) 현대 한국 사회의 문화적 풍경

- 2년 과제 1억 6천만원 수주
- 한국연구재단
- 과제명 : “현대 한국 사회의 문화적 풍경: 핸드폰, 택배, 방, 라면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 : 이수안 (이화여대)

3-2) 새터민의 정체성과 적응과정

- 단년 과제 7천만원 수주
- 한국연구재단
- 과제명 : “북한 이주민의 정체성과 사회적응에 대한 패널연구”
- 연구책임 : 염유식 (연세대)

2010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2010. 6. 11 (금) ~ 6. 13 (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 전기사회학대회를 6월 11(금) ~ 13(일) 일에 제주도 성산포 휘닉스 아일랜드 호텔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학술대회를 마치고 모든 회원이 함께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성산일출봉 주변의 '신양리 해안' 올레길 코스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회원님들의 동반가족들은 학술대회 시간동안 전용 버스로 따로 모시고 제주의 생태문화를 체험시켜 드리려 합니다. 아래 자세히 설명드린 가족여행 일정과 숙소 안내를 일별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학회 일정

1) 제주도로 가시는 비행기는 한 편 뿐입니다.

6월11일 금요일 오전10:55 (LJ307편, 김포출발)~낮12:00 (제주공항도착).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진에어'는 대한항공 자회사이기 때문에 프로펠러 비행기가 아니고, 이 노선을 위해 새로 도입한 보잉 737-800 제트기입니다.

이 시간대에 150명 좌석을 확보하였고 200명까지 예약확장 가능합니다.

2) 돌아오시는 비행기는 두 편 있습니다.

① 토요일 오후 올레 일정만 참여하실 경우 아래 비행기 편을 이용합니다.

6월 12일 (토요일) 저녁 9:15 (LJ328편, 제주출발) ~ 10:10(김포 도착)

이 시간에 100석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② 하루 더 머물고 일요일 올레 탐방을 하시는 경우는 아래를 이용합니다.

6월 13일(일요일) 저녁 8:20 (LJ326편, 제주출발) ~ 9:25(김포 도착)

이 시간에 50내지 100석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③ 할인된 비행기요금은 왕복 12만원이고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2만원을 더하면 14만원입니다.

④ 회원님의 아내나 남편, 아이들의 한글이름과 생년월일만 (진에어가 아닌) 저희 학회 사무국에 알려주시고 입금을 하면 비행기 예약은 완료됩니다.

⑤ 청주나 대구, 김해, 광주 등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노선 자체가 없기도 해서) 따로 무슨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김포 출발 항공편에 합류하시는게 불가능하다면) 각자 미리미리 저희들 스케줄과 비슷한 시간대로 해당 비행기 회사와 직접 예약을 해주십시오.

3) 학술대회 일정은 11일 (금요일) 오후 2:00 ~ 6:00 와

12일 (토요일) 오전 9:00 ~ 12:00 로 잡고 있습니다.

호텔의 회의실을 5개 정도 빌릴 예정이오니, 각 분과의 조직책임자들께서는 평소보다 빠른 5월 중순경까지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구성을 완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주제별 조직책임자

발표 신청은 아래 명시한 분과 및 주제별 조직책임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직책임자가 바뀌신 분과는 학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 분과

이론	이재혁(서강대)	dalpang22@paran.com	02-705-8366
문화	최셋별(이화여대)	choseta@gmail.com	02-3277-3910
사회사	서호철(한국학중앙연구원)	hochul@aks.ac.kr	031-781-4388
종교	송재룡(경희대)	jrsong@khu.ac.kr	02-961-0466
동양사회/ 동양사상	박수호(중앙승가대학교)	foramita@chol.com	031-813-4408

II 분과

경제/ 조직	정동일 (한림대)	dijung@hallym.ac.kr	033-248-1744
도시/ 지역	최우영 (전북대)	gumpoo@chonbuk.ac.kr	063-270-2918
범죄/ 일탈	신동준 (국민대)	djshin@kookmin.ac.kr	010-3413-4890
정보/ 과학	최향섭 (국민대)	jesuishs@paran.com	02-910-4471

III 분과

여성/ 가족	김은정(덕성여대)	ejkim@duksung.ac.kr	02-901-8447 010-7244-5623
다문화/ 소수자	설동훈(전북대)	dhseol@gmail.com	063-270-2917 010-8931-3022
농촌	김홍주(원광대)	kanddol@wku.ac.kr	063-850-6128
인구/ 노인	박경숙(서울대)	pks0505@snu.ac.kr	02-880-6404

IV 분과

정치/ 민주화	윤상철(한신대)	yoon2137@hs.ac.kr	031-379-0555 010-2041-6694
산업/ 노동	이주희(이화여대)	j.lee@ewha.ac.kr	02-3277-4644
계급/ 계층	이성균(울산대)	skleeuou@chol.com	052-259-2817
환경	박순열(서울대)	ecosoon@gmail.com	02-880-8799

대학원생세션	강정한 (연세대)	jkan9130@gmail.com	010-2239-0222
--------	-----------	--------------------	---------------

2. 숙소 안내

- 호텔명 : 휘닉스아일랜드 <http://www.phoenixisland.co.kr/>
(064) 731-7000~5)

제주도의 동쪽 끝 성산포읍 해안가 섭지코지에 위치하며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오름의 능선이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는 풍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지코지는 몇 년 전 히트한 이병헌, 송혜교 주연의 국민드라마 「올 인」을 비롯한 많은 드라마의 배경으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풍경과 함께 해양휴식의 진수를 경험 해 볼 수 있는 제주도의 미래형 해양종합리조트입니다.

- 소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 예약과 문의 : 4월 19일(월)~4월 30일(금) 사이에 예약과 함께 입금송금을 받겠습니다. 담당자 한국사회학회 사무국장 이정은씨 (722 - 8747)

- 객실요금

객실은 리조트 펜션으로 34평형과 54평형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1개의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A형, C형. 혼자, 또는 가족이 독채를 이용하는 경우는 B형, D형으로 구분합니다. 아래의 객실요금표를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객실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가격은 정상가격의 30%정도로 할인된 가격입니다.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객실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 객실요금표

	34평형(4인기준)		54평형(6인 기준)	
	침대방1(더블), 온돌, 거실		침대방2(트윈,더블), 온돌, 거실	
유형	A형 (4인 1실)	B형 (독채)	C형 (6인 1실)	D형 (독채)
포함 내역	조식	조식 없음	조식	조식 없음
객실 요금	1인 지불요금 57,750원	165,000원	1인 지불요금 58,200원	250,000원

-A형은 객실요금이 165,000원입니다. 4인 기준 객실이므로 1인당 객실요금인 41,250원과 조식요금 16,500원을 합친 가격입니다.

-B형은 34평형 객실을 독채로 사용하되 조식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조식을 원하면 1인당 16,500원을 추가로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C형은 객실요금이 250,000원입니다. 6인 기준 객실이므로 1인당 객실요금인 41,700원과 조식요금 16,500원을 합친 가격입니다.

-D형은 54평형 객실을 독채로 사용하되 조식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조식을 원하면 1인당 조식요금 16,500원이 추가됩니다.

-1박을 기준으로 함.

(13일 일요일까지 하루 더 묵으실 분은 2박을 예약해 주십시오.)

3. 가족 여행 일정.

-제주관광의 새로운 대안, **마을생태문화 체험**

사회학대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은 제주공항 도착 즉시 회의장이자 숙소인 휘닉스 아일랜드로 출발하고, 가족들은 따로 모여 12시 제주공항에서부터 전용 버스로 마을 생태문화 체험을 떠납니다. 동반 가족 여러분들을 편안하고 즐거움이 있는 제주마을 문화체험으로 초대합니다. 제주의 여러 마을들은 각자 고유한 마을의 민속을 기반으로 체험상품을 개발하여 생태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해거름 마을’은 해넘이가 아름다운 해안마을입니다. 전통어로의 민속인 테우, 바룻잡이 체험을 마을주민들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예약과 문의 : 4월 19일(월)~4월 30일(금) 사이에 예약과 함께 임금을 받겠습니다. 담당자 한국사회학회 사무국장 이정은씨 (722 - 8747)

■ 일정표 보기

일정	시간	여행일정	비고
첫째날 (6월11일 금요일)	12:00	제주공항 도착, 가족 여행 참가 인원 점검	
	12:30~1:30	중식	
	1:30~18:00	제주 서부 해안마을 생태문화 체험 -제주의 문화예술 마을 탐방, 현대미술관 -제주현대사의 생채기, 무명천할머니 생가 -제주어촌마을체험, 해거름마을의 테우낚시, 해산물 채취	
	18:00~19:00	숙소(휘닉스아일랜드)로 이동	전용 버스
	19:00~21:00	만찬	호텔 연회장
	21:00~	자유 시간	
	둘째날 (6월12일 토요일)	09:00	휘닉스아일랜드 로비 집합, 출발
09:00~12:00		제주 동부 해안마을 탐방 -오름과 바람의 삼시간의 황홀, -김영갑 사진갤러리 (평생 제주도 사진만 찍으신 분의 작품	

		전시) -성산일출봉(세계자연유산등재지)유람선 관광	
	12:00~13:00	중식 (휘닉스아일랜드)	
	14:00~18:00	회원단합대회 제주올레길 걷기- 신양리 해안	
	18:00~19:00	공항으로 이동	전용 버스
	19:00~21:00	사우나와 저녁 식사 (참조 : 저녁 8: 30 ~ 10 :30 월드컵 축구 한국 대 그리스 전)	
	21:05~22:10	비행기 탑승	제주공항
셋째날 (6월13일 일요일)	09:00~12:00	올레길 걷기 (코스 미정)	
	12:00~14:00	점심 식사	
	14:00~17:00	올레길 걷기 (오전과 다른 코스)	
	17:00~18:00	공항으로 이동	전용 버스
	18:00~20:00	사우나와 저녁 식사	
	20:20~21:25	비행기 탑승	제주공항

KJS 원고 모집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학회 공식 영문잡지 Korean Journal of Sociology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연 4회 간행되는 한글판 <<한국사회학>>과 함께 KJS는 6월(3호)과 12월(6호) 일년에 두 번 간행되는 학진등재저널입니다.

KJS는 주제, 관점, 방법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하며, 이론적인 논문 역시 환영합니다. 단, 논문이 지역연구(area studies)의 성격을 가질 경우, 한국 및 한국 관련 연구에 채택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KJS의 원고는 상시 모집하며, 2010년 6월호(44집 3호)의 원고마감 기한은 2010년 4월 15일입니다. 보다 수월한 편집을 위해 투고예정인 경우 4월 15일 이전이라도 미리 KJS 편집위원장(kjseditor@gmail.com)에게 투고의사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KJS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 홈페이지 www.kjs.re.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JS 편집위원장 장원호 드림

2009년 한국사회학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 함인희(이화여대)
부위원장 : 장원호(서울시립대, KJS담당)
편집위원 : 김경희(중앙대), 김광기(경북대), 윤인진(고려대), 이성균(울산대),
이주희(서평 담당, 이화여대), 장덕진(서울대), 정동일(한림대), 정철희(전북대)
조영태(서울대 보건대학원), 최셋별(이화여대), 한준(연세대)
편집책임 : 김은정(이화여대), 최슬기(KJS담당)
편집간사 : 정세경(이화여대), 이정연(KJS담당)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 사업 공고

[아직 한국연구재단의 공식 공고가 나지 않았기에 최근 '교수신문'에 실린 기사를 여기에 전재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 사업추진방향을 밝혔다. 이 사업은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집단연구지원사업 중 하나다. 이번 연구는 학문, 대학 간 협력연구에 주력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사회과학 분야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석·박사 대학원생이 부족해 연구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연구자들에게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사회과학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 사업은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ocial Sciences Korea; SSK)과 '사회과학특정연구지원사업'으로 나뉘며, 각각 120억원과 30억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3월 중에 공고해 5월에 과제 접수가 마감될 계획이다.

- (1) 'SSK사업'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사회과학 아젠다 지원과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이 주 내용이다. '공존영역', '풍요영역', '조화영역' 등 대 주제 하에 관련 연구주제들을 자유 공모하는 방식이다. 연구 과제 심사 단계에 면접심사를 넣어 지원연구팀 공동발표 및 토론을 포함시켜 과제를 선정한다. 10년의 연구 일정은 3년, 3년, 4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초기에는 소형연구팀 간 연합을 통해 중장기 목적 달성을 위한 중형연구단 및 대형연구센터로 단계적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 (2) '사회과학특정연구지원사업'은 '연구자네트워킹지원사업'과 '사회과학지정사업'이 목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Ⅲ. 학술모임

2010년도 한국사회학회 사회통합위원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 주제: “한국의 사회갈등과 통합방안”
- 일시: 2010년 3월 19일 금요일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한국사회학회, 사회통합위원회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사회갈등과 통합방안’을 주제로 하여,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다문화간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연구 발표와 관련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들의 사회갈등과 통합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도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되었다. (동아일보 3월 20일자 보도 참조)

심포지엄 서두에 서울대 사회학과 홍두승 교수는 ‘한국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 그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날 발표되는 연구 주제들 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기조발제를 진행하였다. 사회갈등 완화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있으며, ‘사회적 강자’의 관용과 사회적 책임 또한 사회갈등 완화에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해가 극도로 상충되는 사회갈등의 경우 이를 조정하는 국가나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한데, 예컨대 (가칭) ‘사회갈등중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경원대 이원덕 교수 사회로 진행된 <계층갈등 세션>에서는 중앙대 신광영 교수가 ‘한국사회의 계급갈등- 노동계급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사회보장이 취약한 상태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만 미국수준으로 이루어져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사회적 위험이 크게 증가한 것을 한국사회 계급갈등의 심화요인으로 꼽

으면서,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 - 높은 사회보장 -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방대 김병조 교수는 '한국 계층갈등의 특성과 계층갈등 완화방안'에서 계층격차와 계층의식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계층갈등이 심화되는 '직장생활→소비생활→일상생활→사회이동→직장생활'의 순환과정 전체에 걸친 갈등관리정책 추진, 정부정책에서 계층격차 완화정책의 우선순위 제고, 사회 상층의 정당성 확보 노력 강화, 중산층의 생활안정성 확보 정책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세대 강철희 교수는 '계층갈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연구'에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할수록 사회적 자본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지도층의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구축이 사회적 자본 구축에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발표하였다.



두 번째 서울대 송호근 교수 사회로 이어진 <세대갈등 세션>에서는 경상대 박재홍 교수가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 정치 및 문화부문을 중심으로' 발표에서 세대간 권력 갈등, 이념갈등, 문화갈등 발생과정과 양상에 대해 짚어보고, 역기능적 측면이 강한 문화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조리와 비리, 온정주의와 부패를 바로잡고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고려대 박길성 교수는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 연금과 일자리의 세대 지형' 발표에서 연금, 일자리와 같은 경제적 이해를 둘러싼 세대갈등 문제를 조명하고, 일자리 갈등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일자리 나누기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사회마케팅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였다.



서울대 정진성 교수 사회로 진행된 세 번째 <남녀갈등 세션>에서 한양대 심영희 교수는 “21세기형 공동체가족’ 모델의 모색과 지원방안’을 통해 ‘21세기형 공동체가족’을 개념화하고, ‘21세기형 공동체가족’ 지원방안을 제도적 차원과 문화적 동기화의 차원에서 제안하였다.

중앙대 김경희 교수는 ‘가족 친화적 일-가족 양립 정책’ 발표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정책대상이 여성에 맞춰져 있는 점,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이 두어지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장시간 근로 문제 개선과 가족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산대 김성국 교수 사회로 진행된 <다문화갈등 세션>에서 배재대 이해경 교수는 ‘다인종사회 관련 갈등과 사회통합 - 결혼이민자 및 자녀를 중심으로’ 발표에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자녀를 둘러싼 갈등의 다양한 양상을 제시하고 그동안 추진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해결책을 하나하나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 통합’을 발표한 전북대 설동훈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현황과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이들의 통합 방안을 이론적 시각에서 검토한 후 대상별로 세분화된 지원정책 개발, 사회통합 프로그램 마련과 국민들의 편향된 인식 개선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IV. 출판활동

<한국사회학> 2010년 제44집 1호 발간

<한국사회학> 2010년 제44집 1호에는 연구논문 8편이 실렸습니다. 게재된 논문의 제목과 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논문>

- 한국의 서비스산업 확대는 남녀임금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이성균 · 김영미
- 비정규직과 노동정치 : 산업부문간 비교연구 / 이주희
- 창조적 지역발전과 그룹지니어스 : 신활력사업 대상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 정동일 · 성경룡
- 복지국가 발달에 대한 문화주의적 해석과 그 평가
: 미국과 캐나다의 복지수준 차이에 대한 립셋의 견해를 중심으로 / 조영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 : 이중차이 방법을 이용한 추정 / 구인회 · 임세희 · 문혜진
- 전환기적 사회에서의 정치변동과 범죄 : 1990년대 러시아의 사회맥락을 중심으로 / 김상원
- 종교성과 종교적 배타성 간 관계 / 한내창
-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 이희영

V. 회원동정

부고

-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이태원 교수 모친상 : 2010년 1월 16일 별세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정대연 교수 부친상 : 2010년 1월 18일 별세
-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박정선 교수 빙모상 : 2010년 2월 28일 별세

보직

- 고희면
2009년 9월부터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로 근무.
- 김홍중
2010년 3월 1일 대구대 사회학과 조교수에서 서울대 사회학과 조교수로 옮김.
- 김혁래
프랑스 파리 Sciences Po에서 Korean Studies Chair Professor로 근무.
(2010년 1월~2011년 1월)
- 한석정
동아대학교 교무처장.

신입회원

- 김태영 - (주)리서치앤리서치
- 김한슬 - (주)리서치앤리서치
- 박상훈 - 한양대학교
- 신석영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이창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종원 - (주)리서치앤리서치
- 하홍규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회원 출판소식

○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12. 18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05년부터 발표한 다양한 논문들을 묶어 펴 낸 책이다. 이 책을 관통하는 중심 개념은 '마음'이다. 여기에서 마음은 인식론적 기관인 마인드(mind)나 전통적 형이상학적 개념인 심(心), 혼(魂), 령(靈) 혹은 심리학의 사이키(psyche)처럼 개별화된 개인의 심리적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 사용되는 '마음'은 특정 시대에 한 사회의 구원성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일종의 공통 감각, 집합적 표상, 에토스와 같은 구조화된 집합적 심리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책은 크게 세 가지의 상이한 '마음'의 현상을 다룬다. 첫째, 제 1부 '마음의 레짐'에서 저자는 97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 사회의 집합적 에토스가 변동하는 과정을 '진정성의 체제로부터 포스트-진정성의 체제로 이행'으로 파악하면서, 포스트-진정성 체제의 본질을 '스노비즘'으로 분석한다. 둘째, 제 2부 '마음의 풍경'에서 저자는 서구의 '문화적 모더니티(cultural modernity)'를 하나의 특수한 마음의 구조로 파악하면서, 그 구조를 구성하는 다양한 풍경 즉 테마들(성찰성, 순간의 시간성, 멜랑콜리)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셋째, 제 3부 '마음의 징후'에서 저자는 다양한 작품들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작품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의 '마음'을 어떻게 징후적으로 해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학, 예술사회학적 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목차>

제1부 마음의 레짐-진정성의 운명

- 1장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 2장 삶의 동물/속물화와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귀여움
- 3장 스노비즘과 윤리
- 4장 근대문학 종언론의 비판

제2부 마음의 풍경-문화적 모더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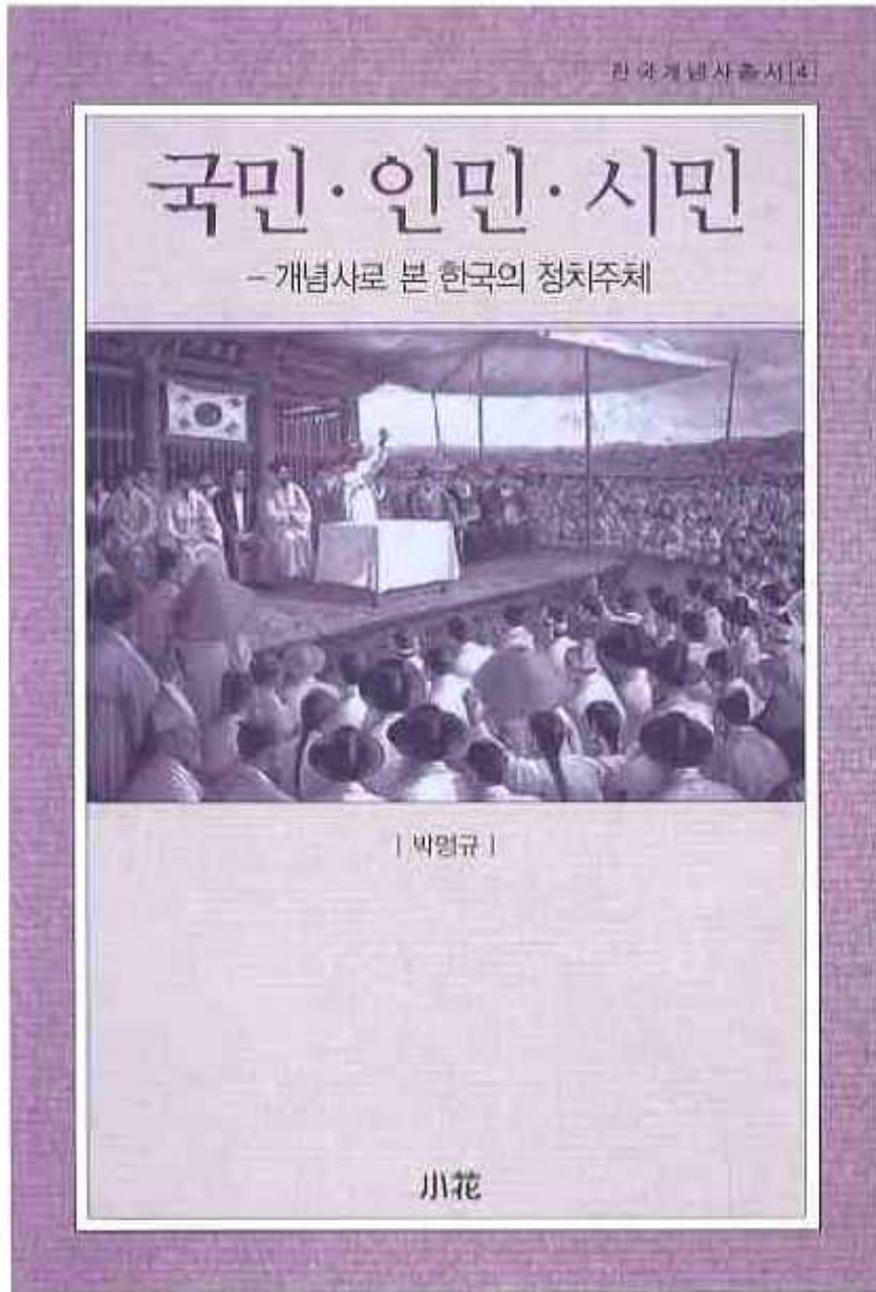
- 5장 다니엘의 해석학-풍경에 대한 사회학적 사유의 가능성
- 6장 파상력이란 무엇인가?
- 7장 멜랑콜리와 모더니티
- 8장 근대적 성찰성의 풍경과 성찰적 주체의 알레고리
- 9장 문화적 모더니티의 역사시학

제3부 마음의 징후-사회학적 비평의 가능성

- 10장 13인의 아해(兒孩)-한국 모더니티의 코스
- 11장 유령, 리즘, 그리고 교량(橋梁)-김수영 전통론의 재구성
- 12장 실재에의 열정에 대한 열정-미래파의 시와 시학
- 13장 무라카미 하루키, 우리시대의 문학적 지진계
- 14장 행복의 예술, 그 희미한 메시아적 힘

○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국민, 인민, 시민 -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2009.



이 책은 개념사의 방식으로 사회적 주체형성을 탐색한 연구서다. 국민·인민·시민이라는 세 개념이 언제부터,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왔는지를 검토하면서 개념의 수용, 변화, 긴장, 갈등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사회사적 함의를 추적한다. 이들 개념 속에는 오랜 한자문명의 유산과 19세기 말 이래의 서구 근대문명의 수용, 이후의 역사적 변동이 혼재하고 있다.

이 책은 개념들 속에 담긴 복합적인 의미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정치주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 변화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분화되지 않은 피지배층 '민'을 가리키던 전통 어휘가 정치의 주권자이자 인격적 주체를 뜻하는 근대 개념어로 전환되어 온 역사와 함께 서양의 사상이 번역을 통해 수용되어 정착하고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검토되고 있다. 또 식민지 경험과 분단의 상처가 이들 개념을 둘러싸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도 서술된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민주화와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민과 시민의 상호관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와 미래를 고려할 때 현재 국민과 인민으로 분리되어 있는 개념적 긴장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도 과제다. 다문화상황의 확산 속에서 시민과 국민, 민족 사이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그 의미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국민·인민·시민의 개념은 앞으로도 한국 지성사와 사회사, 그리고 미래학에 중요한 주제로서 논의될 것이다.

<목차>

1. 개념과 역사

국민,인민,시민 / 근대의 개념적 긴장 / 개념사와 사회사
 개념사 연구의 한국적 맥락 / 방법론적 원칙과 구성

2. 국민의 개념

한자문명권의 국과 국민/ 서구사회와 네이션 / 번역어 국민 개념과 동아시아 /
 구한말 정치변동과 국민 개념의 수용/ 식민지의 국민 개념 / 해방과 건국과정
 의 국민 개념

3. 인민의 개념

한자문명권의 인과 인민 / 서구사상과 인민개념/ 번역어 인민개념과 동아시아/
 구한말 정치변동과 인민개념의 수용/ 식민지의 인민개념과 사회운동 / 해방과
 분단과정의 인민 개념

4. 시민의 개념

전통사회의 시와 시민 / 서구 계몽사상과 시민개념 / 번역어 시민개념과 동아시아 /
 구한말 정치변동과 시민 개념의 수용 / 식민지의 시민 개념 / 정치적 주체형성과 시민 개념

5. 결론

국민,인민, 시민 개념의 시공간성 / 전환기 또는 안착기에 대하여/ 기대지평과 개념 /
 언어와 번역의 문제 / 개념사와 주체형성 / 한반도 통일과 개념, 그리고 정치주체

○ 박철현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사회문제론: 이론, 실태, 지구적 시각>>, 박영사, 2010

저자가 대학에서 오래 동안 <사회문제론>를 강의해 오면서 느낀 점은, 사회문제가 매우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감각을 충분히 지닌 분들이 강의를 해야겠지만, 현실은 오히려 젊은 학자들이 이 과목을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은 <사회문제론> 과목에 대한 교재의존도를 높이며, 강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주위에서도 사회문제를 강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목에 대한 적당한 교재가 없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기존의 <사회문제론> 교과서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것들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문제론>은 사회문제를 보는 다양한 시각과 쟁점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사회문제를 보는 분석틀을 갖게 하는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이론에서 어떻게 사회문제를 해석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정책대안을 도출하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출간되어 있는 많은 <사회문제론> 교재들은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들 교재들은 대부분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매우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대책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거의 논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책은 여러 사회문제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도 풍부한 이론들을 소개한다.

둘째, <사회문제론> 과목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의 실태와 거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최근의 자료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팬찮다고 생각되는 교재 중에는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교재 제작에 참여하여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문제가 시사적인 강의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사회문제론>을 강의하면서, 2005년의 최저생계비에 대해 학생들에게 강의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경우 대부분의 강사들은 교재를 벗어나 매주 새로운 자료를 조사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는다. 이 문제는 실제로 강의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단독으로 교재를 쓰기에 미흡한 저자가 혼자서 교재를 출간하는 한 이유가 되었다.

<목차>

제1부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들

제1장 사회문제란 무엇인가?

제2장 사회질서와 사회문제의 이론들

제2부 개인적 행위의 문제

제3장 범죄문제

제4장 청소년 폭력문제

제5장 약물남용문제

제6장 성관련문제

제3부 불평등의 문제

제7장 빈곤 및 실업문제

제8장 여성문제

제9장 소수집단문제: 국적, 민족, 지역

제10장 노인문제

제4부 사회제도 및 삶의 질과 사회문제

제11장 가족문제

제12장 교육문제

제13장 건강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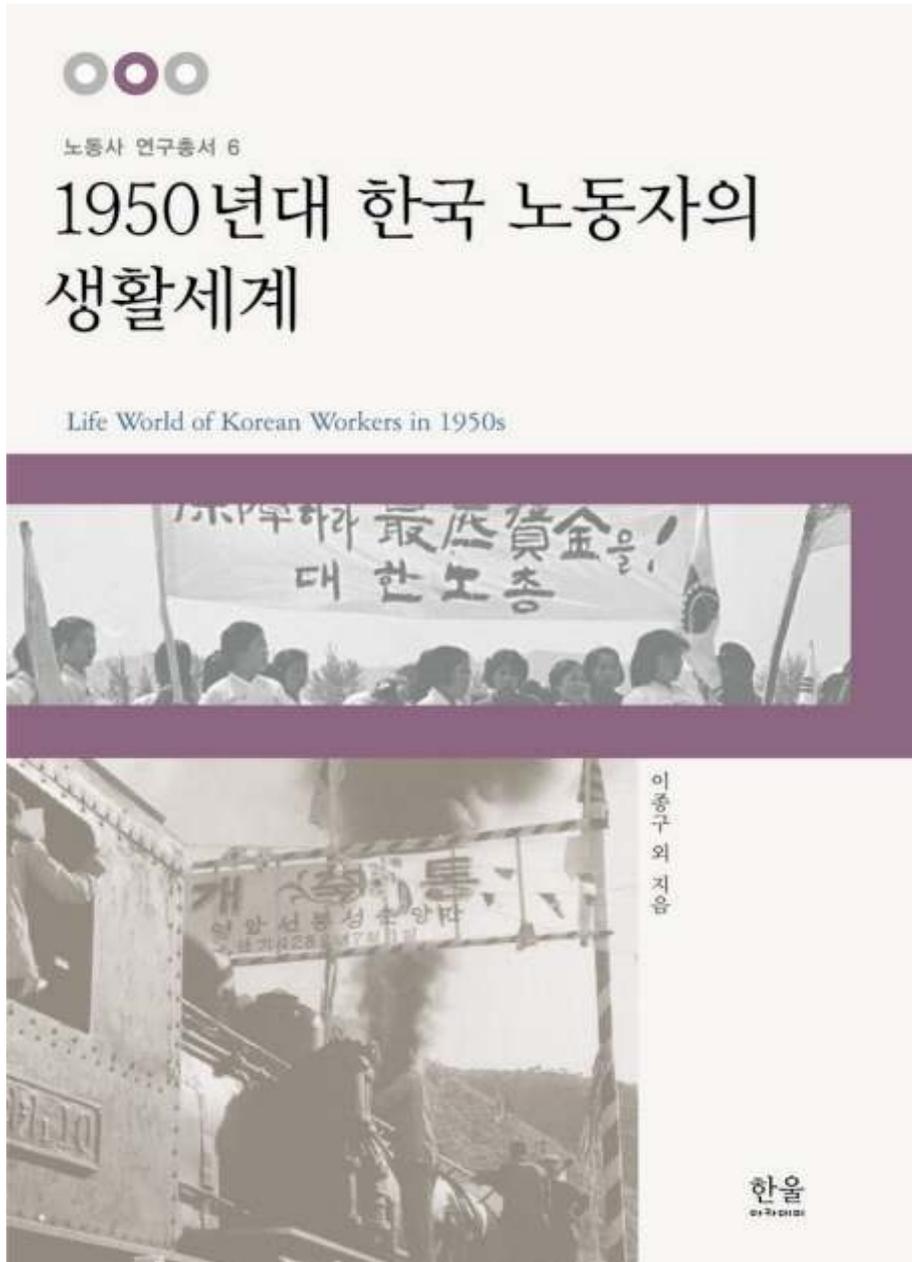
제14장 인구문제

제15장 환경문제

제5부 결론: 사회문제의 연관성과 정책적 우선권

○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이종구의 편저자 - 김준, 박준엽, 김경일, 김원, 신원철, 김현선, 이희영, 김순영)

<<1950년대 한국 노동자의 생활세계>>, 한울, 2010. 2



1950년대 노동자의 실태를 구술면접을 중심으로 살펴본 글. 철도, 방직, 철강산업, 탄광의 노동자, 급진적 노동자, 공장노동 여성, 전쟁 미망인 등의 1950년대의 노동자 삶을, 주로 개인적이고 미시생활사적 측면에서 고찰함.

기타

○ 김혁래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2009년 "Contested Governance in the Making of Multicultural Societies: Labor Migration and International Marriages." *Korea Observer* 40 (2): 273-300 논문출판하였으며; 2010년 "Aspiring to be Global: Migration and Multicultural Contention in Japan, Korean, and Taiwan", "Foreigners Cometh!: Multiculturalism and Cultural Governance in East Asia" (with Ingyu Oh) 논문출판 예정이다. "Shifting Power : From State-centric to Contested Social Governance in South Korea" 논문을 제 6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 Sector Research (ISTR) 학회에서 발표하였으며, Routledge Series on Modern Korea의 시리즈 편집책임자로 *State-Centric to Contested Social Governance in South Korea: Shifting Power*를 출간할 예정이다.

VI. 기타공지

분과학회 및 연구소/ 학교/ 학과 공지

● 한국문화사회학회 학술대회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사회학회입니다.

이번 한국문화사회학회에서는 "한국사회의 문화자본과 상징적 경계(가제)"라는 주제로 이화여대에서 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대학원생의 세션도 별도로 구성됩니다.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일시: 2010년 4월 23일(금) - 4월24일(토)

모쪼록 많은 연구자 선생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대학원 학생들의 발표 및 참여도 독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논총 23호(2010년6월호) 모집 안내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사회과학연구논총> 23호(2010년 6월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아울러 사회과학연구논총이 2008년부터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선생님들의 소중한 옥고를 저희 논총에 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과학연구논총은 매해 6월 말과 12월 말, 두 차례 발행하고 있으며, 선생님의 단독연구, 학생과의 공동연구 모두 게재 가능합니다. 모집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 용 : 사회과학영역 전반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제학, 문헌정보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소비자학, 언론홍보영상학, 여성학 등)
2. 원고 마감 : 수시 접수하지만 6 월호는 가능한2010년 5월 말까지
3. 원고 형식 : 첨부된 <사회과학연구논총 투고요강>의 편집 규정과 작성예제를 참고 (국문, 영문 가능)
4. 논문 게재료: 연구비 지원논문 20만원, 일반 논문 10만원 (논문심사 후 연락)
5. 원고 제출처: 전자메일 전송을 원칙으로 한다.
* 전자메일(E-mail): riss@ewha.ac.kr
6. 원고 표지: 성명(국/영문), 소속과 직책(국/영문), 연락처(전화번호 및 e-mail, 주소) 논문제목(국/영문) 명기 요망.

논문 게재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구소나 편집위원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 3277-2278 / 편집위원회 riss@ewha.ac.kr)

좋은 논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구소장 조성남 • 편집위원장 김현민 사회과학연구소 편집위원회

● 2010년 한국갤럽학술논문상및 한국갤럽박사학위논문상 추천 및 응모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사연구학회에서는 한국갤럽(Gallup Korea)의 재정지원으로 한국갤럽학술논문상과 한국갤럽박사학위논문상을 제정하여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2010 한국갤럽학술논문상은 2009년에 발표된 논문 가운데 조사연구 분야의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한국갤럽상(상금 1000만원)과 우수상 (4편이내, 각 500만원)으로 구분됩니다.

한국갤럽박사학위논문상은 2009학년도에 취득한 박사학위 가운데 조사연구 분야의

우수한 학위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최우수학위논문상(상금 300만원)과 우수학위논문상(4편이내, 각 200만원)으로 구분됩니다. 박사학위논문 수상자의 지도교수께서는 한국갤럽박사학위논문 지도상(상패)를 시상합니다.

논문 추천 및 응모기간은 2010년 3월 15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社會科學論集』 제 41집 1호(2010년 봄호) 원고 모집 공고

『社會科學論集』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1965년도부터 발간해 온 사회과학분야 전반에 관한 학술논문집입니다.

논문 투고 시 심사비와 게재비는 없으며, 논문 게재 확정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는 전자우편(ssri@yonsei.ac.kr)을 통해서 접수하며, 원고 접수 후 접수 확인 메일과 함께 발송되는 투고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논문 접수 및 발간일정(제41집 1호/ 2010 봄호) >

- 연구논문 제출 마감 : 2010년 4월 9일
- 심사 및 게재 확정 : 2010년 5월 초순
- 논집 발간 : 2010년 5월 31일

■ 접수 및 문의 : 전화: 02-2123-3538 (담당자 : 윤종현: 010-4487-8182)

팩스: 02-2123-8176

메일: ssri@yonsei.ac.kr

● 2010 비판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모집 공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판사회학회는 2010년 춘계 학술대회를 5월 27일(목)에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와 함께 전남대학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비판사회학대회의 주제는 '격변의 정치, 흔들리는 사회학'입니다. 그리고 특별 세션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일합방 100년, 한국전쟁 60년, 4.19혁명 50년, 광주항쟁 30년, 전태일 열사 분신 40년, 6.15 공동선언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100년 사이에 독립,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급속한 근대화의 과정은 깊은 사회적 갈등과 구조적, 의식적 격변을 동반하였습니다. 2010년 춘계학술 대회는 급속하고 격렬하게 진행된 한국적 근대화가 남긴 '현재'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추상적으로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적 현대, 즉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면서 그것들이 접합하여 재구성하는 독특한 '한국적 현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2010년 비판사회학회 춘계 학술대회가 한국적 특수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비판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시기를 원하시는 회원 및 연구자께서는 **4월 16일(금)까지 발표예정 논문 제목 및 초록**을 학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대주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발표논문을 구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세션과 연관된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가급적 빨리 학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게시는 선생님들이 독자적으로 공동발표 세션을 구성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이 경우 공동발표 세션 구성안을 학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학회는 각 세션의 조직자가 연구단체(연구소, 학과, 연구팀 등)인 경우 연구단체의 이름을 각 세션에 명기해드리고, 필요하면 비판사회학회 참가단체라는 이름으로 자료집 표지에 명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션을 조직한 연구단체의 실적이 필요한 경우 요청을 하시면 세션 조직자로 명기해드리고 참가단체로도 열거해드리겠습니다. 대학원생이 발표를 원하는 경우, 지도 교수의 추천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문은 5월 17일까지 비판사회학회로(sansahak@empal.com) A4 5장~7장의 논문 요약본과 완성본을 학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공지 이용 안내

뉴스레터에 회원 여러분의 최근 활동(저서출간, 보직, 안식년, 출장 등)과 변동사항(주소, 전화번호, 직위 등)을 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학술대회, 학과 활동 등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학회사무실(Tel : 02-722-8747, Fax : 02-722-8746, E-mail : admin@ksa.re.kr)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